

# 2014. 9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4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사	
2014.9.30.	대전MBC 대회의실	7/10	7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박희원, 유덕순, 김형주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김창옥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차태헌 방송기술센터장, 신원식 창사 50주년 기획단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9	-	1	15	-	15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8	6	1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9건	9건	8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 적절한 자료화면 활용	교양(토크앤조이) 프로그램 자료화면 삽입	8월
기타	대전MBC 홈페이지 다시보기 화면 변화	홈페이지 전면 개편 다시보기 화면 좋아져	8월
보도	중앙뉴스 끝나고 로컬뉴스 방송시 매끄럽게	로컬뉴스로 넘어올 때 매끄럽게 처리	8월
기타	홈페이지 네티즌과 쌍방 소통 강화	홈페이지 개편으로 네티즌과 쌍방소통 강화함	8월
보도	충남의 농촌인구 감안 농촌뉴스 소홀함이 없도록	농촌관련 뉴스 꾸준히 소화	8월
보도	뉴스에서도 특정업체 홍보가 되지 않도록 취재 유의	특정업체 홍보 되지 않게 뉴스제작에 유의	8월
보도	헤드라인 뉴스 배경음악이 과도하게 높아	헤드라인 뉴스 배경음악 볼륨 줄임	8월
교양	교양 현지촬영 영상미 살려 촬영	교양(아침이 좋다) 영상구성에 있어 영상미와 현지 분위기 살림	8월
기타	창사50주년 관련 홍보 강화	시내버스에도 홍보 포스터 부착 다양하게 홍보함	8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위촉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위촉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촉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촉
위원	박희원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장해촉 위원 유임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위원 유임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위원 유임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9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방송진행자의 멘트에서 2중 진행형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 되고 있습니다.”, “..우려 되고 있습니다”, “..예상 되고 있습니다” 등 이 그런 예이다. 보인다, “전망된다, 우려된다, 예상된다” 라고 표기하고 발음해야 할 것을 2중 진행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표기법과 올바른 발음으로 시청취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말아야 한다(김학선).</p>	<p>제작부 아나운서 부문은 정기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 표준어와 바른말 사용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고 있으나, 프리랜서 진행자나 리포터 등은 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바른 우리말 사용에 힘쓰도록 하겠다.</p>	○		
편성	<p>표준 FM은 92.5MHz이고 음악FM은 97.5MHz이다. 일반 청취자들도 가끔은 이를 혼동하기도 해서 정확히 고지해줄 필요가 있다. 음악FM은 말 그대로 음악이 중심이 되는 라디오 채널이다. 예전에 작가 없이 PD와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만들 당시 음악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데 작가가 투입되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그런지 진행자 멘트가 많이 들어간다. 음악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닌 토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변질된 듯하다. 음악FM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차별성을 갖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김학선)</p>	<p>경력이 오래된 진행자는 능숙한 진행이 원숙함과 편안함을 주지만, 항상 말이 많아지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지속적인 모니터와 회의를 통해 라디오 프로그램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p>		○	
기타	<p>홈페이지에 올려있는 ‘테마기행 길, 전국이 보인다, TV특강, 공간다큐 그 곳’ 등 TV프로그램의 소재목을 표기해주길 바란다. 모바일에 특집 프로그램이 올려 있지 않다. 특집 다큐 ‘아버지의 일기장’이 올려 있지 않다. PC용과 모바일 버전의 VOD 프로그램에 일부 차이가 있다. ‘콘서트 산책’은 내용이 없으므로 이걸 대체하여 특집 프로그램을 탑재해주길 바란다(김명수).</p>	<p>‘테마기행 길, 전국이 보인다, TV특강, 공간다큐 그 곳’ 등 TV프로그램의 소재목을 표기하였다.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콘서트 산책’ 프로그램은 폐지된 프로그램으로 카테고리 항목을 삭제하였다.</p>	○		
보도	<p>시사광장(9/14)에서 ‘대전, 문화예술의 도시를 꿈꾸다’를 다루었다. 백제문화제가 금년으로 60회를 맞았다. 이에 견주어 볼 때 대전의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무엇인가 자문해 볼 때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다. 대전을 대표하는 바람직한 시민축제, 문화축제에 관한 이슈를 다루어주면 좋겠다(김명수).</p>	<p>대전의 대표축제가 없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TV토론에서도 대전시장 후보들에게 단골질문이 되었다. 이번 시사광장에서 ‘문화예술도시’ 주제로 포괄적 토론을 했지만 축제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앞으로도 축제문화가 단체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시민중심으로 대표축제가 자리잡을 수 있게 계속 이슈화해 가겠다.</p>	○		

편성	<p>시사플러스(9/5) '위기의 지방재정'에서 대전시 동구 국제화센터의 기부체납 반환청구 소송과 지자체의 패소 판결 이후 부각된 지방재정의 취약한 문제점을 다루었다. 사안에 대해 다양하게 취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흥미롭게 시청하였다. 또한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하였다. 이런 내용은 일과성 지적으로 끝날게 아니라 정책당국의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기해줄길 바란다(김명수).</p>	<p>동구 국제화센터는 정치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범위를 넘어선 사업 추진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한다. 지역정가에서는 주제 자체에 대한 근본원인으로 접근하기보다 당리당략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담당 연출팀이 자칫 오해를 받기 쉬운 소재이기도 하다.</p> <p>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연출팀의 노력을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프로그램 제작에 힘쓰겠다.</p>	○		
편성	<p>시사플러스(9/2)에서 '불산의 경고/대전의 대표축제는?' 두 가지 아이템을 방송하였다. '불산의 경고'가 메인으로 소개하다보니 '대전의 대표축제'에 대한 취재가 빈약해 보인다. 수박 겉핥기식이다. 대전의 대표축제 육성에 대한 논의는 심도있게 전개를 했어야 했고 취재 또한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p> <p>메인으로 소개된 금산지역의 한 공장에서 불산유출에 대한 집중적 취재는 시청자로서 하여금 공들인 흔적을 엿볼게 하는데 충분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불산의 위험성을 부각하는데 있어서 불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그에 대한 위험성 지적이 미약했다는 점이다(성정모).</p>	<p>시사플러스는 시청자들이 보다 편하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매주 2개의 아이템을 선정해서 방송하고 있다. 메인 아이템은 시사 프로그램에 걸맞는 무게감 있는 사회문제를 주로 다루고, 또한 다른 한 개의 서브아이템의 경우는 편안하게 보면서 주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다. 그러기에 다소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보다 주제에 밀접하게 접근하면서도, 편안한 방송이 되도록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다.</p>	○		
보도	<p>시사광장(9/7)에서 '세종시 조기정착·정상건설 되고 있나?' 주제로 세종시 문제를 다루었다. 현재 정주여건 점검과 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 발전을 견인해 도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토론을 끝까지 시청하다 보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조기정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헤쳐 적시했어야 한다고 본다(장백기).</p>	<p>조기정착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핵심주제로 삼았지만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일단 토론에서는 조기정착의 걸림돌로 정주여건의 미비와 공무원들이 수도권 출퇴근을 수월하도록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이 문제는 향후 자족기능 확충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여론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p>	○		
편성	<p>시사플러스(9/5)에서 지방재정의 위기를 실감 있게 취재하여 방송하였다. 시청자 입장에서 몰입도 있는 흥미로운 주제와 달는다. 앞으로 이런 심층적인 취재물이 계속해서 나오길 바란다. 덧붙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도 취재해주길 바란다(장백기).</p>	<p>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연출팀의 노력을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관심 있는 부분을 더욱 깊게 살펴보겠다.</p>	○		
보도	<p>언론사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발굴하고</p>	<p>먼저 대전mbc 뉴스에 대한 깊은 관심</p>	○		

	<p>그에 대해 진단을 내려야한다. 의미있는 프로그램이 뉴스이다. 뉴스가 방송사 스테이션 이미지를 확고하게 만든다. 우리 사회에는 현안 문제가 잘 풀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잘 풀리지 않고, 문제소지가 있는 것이 있다.</p> <p>대전MBC 뉴스를 보면 기획보도, 탐사보도가 적고 단신 위주의 뉴스가 많다. 어려운 제작환경이지만 이슈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기획보도물이나 탐사보도물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은 뉴스제작에 있어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송인덕).</p>	<p>에 감사 말씀드린다. 보도국은 올 하반기, 새로운 지방자치의 비전을 모색하는 '민선6기 새로운 출발'을 한 달 간 방송했고, 교황 방문을 앞두고 다른 지역방송사와 달리 관련 기획보도를 방송했다. 특히 교황 방문기간의 경우 다른 지역 언론사는 물론 중앙언론사와는 다르게, 취재팀의 꾸준한 노력 끝에 대전충남 교황 방문 지역의 취재 비표를 모두 획득해 차별화되고 신속한 보도를 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창사 50주년을 맞아 1주일간 대전mbc 보도의 50년을 조명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보도 아이템을 선보였다. 창사 이전 '충청의 멋' 기획보도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왔고, 창사 이후에는 '충청 24시' 등 각종 기획보도물을 통해 주요 이슈별로 충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집중 진단하고 있다.</p> <p>또한, 올 하반기 아동학대 연속 보도와 관공서 개인정보 유출, 모아미래아파트 특종 후속 보도 등 열악한 인력 속에서도 시청자의 요구에 맞는 탐사성 보도에도 노력하고 있다.</p> <p>주지하시다시피, 기획과 탐사 보도물의 특성상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대전mbc 보도국 기자 전원은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일에 대한 열정과 조직에 대한 헌신으로 채워가고 있다. 비록 지역 언론이지만, 곳곳이 대한민국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그 소명을 다하고자 애쓰고 있다.</p> <p>앞으로 다양한 기획과 탐사 보도물이 방송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p>		
<p>보도</p>	<p>뉴스의 책임 있는 보도태도가 절실하다. 9월 24일 뉴스가 그 예이다. 대전 원자력시설 주변에 세슘이 극소량만 검출되어 인체에 무해하다는 용역의 연구결과를 받아서 그 사실만 단순 보도하였다. 지역사회에 민감한 내용이다. 연구용역 그 자체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한발 더 나아가 기자가 방사능 측정기를 갖고 현장에서 측정해 보려는 열의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안 던질 수 없다(송인덕).</p>	<p>대전 원자력시설 주변에 대한 방사능 조사는 지난 2008년부터 전문가와 주변 지역인 대전시 구즉동과 관평동, 화암동 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번 조사는 청주대 이모성 교수팀이 대전 전민동 주민과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대전 관평천 일대 15곳과 주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연구결과는 토양 등 각종 시료를 주민 임회하에 채취해 연구실에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사 작성의 토대가 된 자료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면서 제공됐고, 대전시청 아이টে으로 배포된 자료이다. 6</p>		<p>○</p>

		<p>년 전부터 주민 참여 아래 해온 조사인데다, 해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단순한 연구용역 받아쓰기 아니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p> <p>또한, 지적하신 “기자가 직접 방사능을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일부 학교급식 재료 확인용- 를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해당 방사능 측정기의 경우 정밀도가 떨어지고,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다.</p> <p>대전mbc 기자들은 각종 재난과 재해 현장에서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더욱 더 분발하겠다.</p>		
<p>편성</p>	<p>9월 12일 시사플러스 ‘불산의 경고!’ 에서는 금산 불산 누출 사고현장의 생생한 자료화면 과 당시 증거 화면들을 내보내어 시청자들이 사고 당시의 긴박함과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로도 계속되는 화학물질 사고에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의 상황을 짚어 내었다. 사고의 원인규명과 이후의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이 과거와 같이 피상적으로 논의 하고 넘어갈 것을 우려해 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높이 평가한다. 정보수집과 분석 과정의 노력이 돋보였고, 기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잘못된 관리법과 부실한 규제효과를 지적하는 우수한 방송 사례였다(한찬희).</p>	<p>불산의 경고는 대전의 상수원에 해당되는 금산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환경사고로 심해질 경우 대전지역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대전MBC 시사플러스의 방송을 기점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대전·충청지역에 제기되었고 타언론에서도 심도깊게 다루기 시작했다.</p> <p>시청자들이 공감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대안을 찾는 탐사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p>	<p>○</p>	
<p>편성</p>	<p>9월 2일 테마여행 길 ‘부산 낭만 여행’ 에서는 부산의 특색 관광지과 이색적인 명소를 낭만 여행이라는 테마에 적합하게 남녀 리포터의 유쾌한 진행과 낭만적인 분위기를 잘 살려내어, 시청자로 하여금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부산이란 지역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도록 해주었다. 남녀의 리포터가 연인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연인들의 여행거리를 유명 관광명소가 아니어도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주변의 요소를 소개하여 소중한 추억거리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팁도 알려주는 알찬구성에 흥미를 더해 주었다. 연인, 낭만 이란 기획의도에 잘 녹아들게 연출하여 프로그램 내내 즐거운 리포터들에 비해 상황마다 밋밋한 자막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다가왔다. 리포터의 상황별 재밌는 진행 멘트는 그대로 살려 편집하면 청각적인 전달을 넘어서</p>	<p>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p> <p>오늘날 각종 TV프로그램들이 너무 과도한 자막으로 인해 시청자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p> <p>하지만 프로그램을 보다 친근하고 성격을 잘 살릴 수 있는 범위에서 자막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본 프로그램 제작MBC 9개사는 적극 반영 노력하겠다.</p>	<p>○</p>	

	<p>시각적인 전달력을 덧대어 리포터와 시청자와의 소통에 더 가감없이 전달 될 것이라 기대한다(한찬희).</p>			
<p>편성</p>	<p>전국이 보인다(9/6) 「상주지역 박물관 탐험, 왕의 과일 아로니아 등」 편을 보았다. 이번 '전국이 보인다' 방송에서는 상주의 박물관 탐험, 담양의 아로니아, 여수의 이색 숙소, 평창 감자, 탄광촌 박병문 사진전 등을 주제로 등 전국 방방곡곡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이들과 함께 생생한 체험이 가능한 박물관, 건강에 좋은 아로니아 특산품 외에도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이 진행되었다. 생동감 넘치는 현장과 시민들과의 인터뷰 등을 보면서 지역민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방송을 만들어 가고자 한 방송 관계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몇몇 지역의 특산품을 소개하고 이를 재료로 한 요리법을 소개해주는 시간은 시청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주 '전국이 보인다' 방송은 지역 별 특색 있는 이미지와 특산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어 각 지자체들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성장하는데 있어 충분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오덕성)</p>	<p>전국이 보인다는 전국 MBC 계열사가 제작한 우수한 내용을 담은 모듬 프로그램이다. 휴일 아침에 편안하고 느긋하게 볼 수 있는 소재들로 선택하고 있고, 이런 편안함이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볼거리가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p>보도</p>	<p>이번 시사광장(9/4)에서는 20 여년 전 문화와 예술의 불모지에서 문화·예술의 도시로 변모를 꿈꾸고 있는 대전을 주제로 방송을 기획하였다. 현재 대전은 과거에 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도 늘어나고 문화와 예술 활동 종사자수 및 인프라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p> <p>이에 본 방송에서는 대전문화예술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진정한 문화예술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대전 문화재단 대표와 대전 예술의 전당 대표, 대전 문화연대 공동대표, 민대총 대표가 패널로 참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한 명씩 대전문화예술의 현주소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는 시간은 현재 대전의 상황을 소개해주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을 것이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대전의 모습을 어떻게 대전 시민과 지역문화주체들이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현재 대전의 위상,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변화, 원도심 활성화</p>	<p>시사광장이 대전mbc 대표 시사토론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 토론자들의 발언이 길어질 경우 사회자가 적절한 개입으로 토론이 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토론 전에 가급적 핵심 중심으로 짧게 발언하는 방식을 지향하도록 요청하겠다.</p>		

	<p>와 문화예술 발전 방안, 대전 축제행사의 문제점 등을 자유롭게 발언하면서 진행되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풀어주었다고 판단된다.</p> <p>다만, 초반에 진행자와 토론자들 발언시간이 다소 길어 방송이 끝날 무렵에는 시간에 쫓기듯 급한 마무리와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보여 아쉬움이 남았다. 발언시간 분배를 적절히 하였다면 토론이 더욱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오덕성).</p>			
<p>편성</p>	<p>건강플러스(9/20)에서는 수면장애와 부정맥에 관하여 방송하였다.</p> <p>먼저 ‘맛있는 처방전’에서는 수면장애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수면의 질과 양을 위해 수면장애에 좋은 식품인 양파, 대추, 우유를 주재료로 하는 요리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먼저 한의사의 전문적인 인터뷰를 통해 수면장애의 원인을 알 수 있었고, 위 식품으로 직접 조리하는 방법과 음식을 소개시켜주면서 시청자들의 미각을 자극하였다. 요리법을 소개하는 중간에 조리학과 교수가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p> <p>부정맥에 관해서는 심장학과 교수 및 전문의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진행자의 질문형식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부정맥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방법과 대처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어 시청자들이 궁금증 풀어주었다. 또한 자료화면을 통해 기본적인 심장에 대한 기능과 구조를 설명하고 검사의 진단과 종류, 치료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어 뜻 깊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진행자의 질문은 실제로 시청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실제로 궁금하게 생각되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적절하였으며, 전문의의 적절하고 자세한 대답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오덕성).</p>	<p>의학정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어필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변에 많은 병원이 있지만 쉽게 시간을 내서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lt;건강플러스&gt;는 이러한 시청자들을 위해 시청자들이 주치의에게 편안하게 의학정보를 듣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음식부분과 한국인의 편하게 느끼는 한의학 부분까지 첨부한 종합 건강정보 프로그램이다.</p> <p>보다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의학정보를 담는데 노력하겠다.</p>	<p>○</p>	

